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 공개

가야계 고분 매장주체부·부장곽 확인·고려시대 석곽묘 1기 추가 발견·항아리 등 다량 확인

남원시와 문화재청 국립안주문화재연구소는 사적 제542호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0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29일 오후 4시 발굴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1989년 첫 조사 후, 몇 차례 조사를 거치면서 가야시대 고분이 무리지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연차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20년 9월부터 30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30호분은 고분군 중 규모가 큰 고분에 속하며, 2013년 금동신발과 청동거울 등 중요유물이 나왔던 32호분과 인접해 남원 아영분지의 가야장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곳이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역량을 추정해 볼 자료가 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등 남원지역 가야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조사를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발굴조사 결과, 가야계 고분의 매장주체부와 부장곽(관)이 확인되었고 봉분 외곽에서는 고려시대 석곽묘 1기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무덤 내부에서는 피장자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깃발꽃이’ 등의 마구류가 출토됐다. 특히 도굴이 되지 않은 부장곽에서는 재지계 양식의 그릇받침과 항아리 30점이 다량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아리 내부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잡히는 우럭조개와 피황고등도 수습되어 당대의 식문화와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



완주문화원은 지난 28일 탁본 행사 개막식을 가졌다.

김제문화예술회관, 초대가수 이용과 함께하는 '8.15 광복절 기념 음악회'

김제문화예술회관은 8월 13일 오후 7시 30분 초대가수 이용과 함께하는 제76주년 '8.15 광복절 기념 음악회'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바람이려오', '서울', '잠들지않는시간',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등을 초대가수 이용과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차임벨요들', '하양내비', '내고향' 등을 아코디언 연주가 박순애가 협연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김제시는 공연에 앞서 오후 7시 15분부터 광복 제76주년 기념식을 준비하여 광복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080 안심콜,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8월 3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탁본 체험 행사

완주문화원(원장 김삼곤)이 '문화가 있는 날'에 탁본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29일 완주문화원은 그동안 2~3년 연차사업으로 구축해온 완주지역의 금석문 탁본을 활용해 9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에 탁본에서 찾은 역사속 이야기를 주제로 탁본 전시, 인문학 특강, 탁본 부채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완주문화원은 지난 28일 탁본 행사 개막식을 열고 전시와 인문학특강, 체험행

사를 진행했다. 김진돈(전라금석문연구회장) 강사 강의로 진행되며 8월에는 '이정란 장군 신도비, 남관진 개창비 이야기', 9월에는 '화엄사 중창비, 안심사 사적비, 송광사 사적비 이야기'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참석자는 30명으로 제한된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지난 23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최북미술관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무주군, '최북미술관 소장품전'

9월 22일까지 서양화·한국화 작품 14점 전시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정적인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새로운 피서가 아닐까 싶다. 무주군이 최북미술관에서 '최북미술관 소장품전'을 열어 무더위로 지쳐있는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소장품 기획전은 전북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열정과 혼이 담긴 서양·한국화 작품 14점을 선보이고 있다. 소장품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62일 동안 열려 무주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혜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 작가들은 홍익대학교와 홍익대학원을 졸업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철량 작가를 비롯해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작품들은 자연과 삶 등을 진솔하게 화폭에 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피서와 함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작품 가운데 윤철규 작가가 선보인 '무주어죽'은 어릴 때 자주 먹던 어죽을 화폭 한가득 채워 고향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밖에 이임순 작가의 '라제통문'은 마치 실제 모습과 흡사할 정도로 완벽하게 화폭에 재현하고 있어 작품을 접한 관람객들은 라제통문에 온 착각에 들 정도다.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 '삶·그리움', 김승호 작가 '생명력', 조계환 작가 '날아들다' 등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시설사업소 시설관리팀 양정은 주무관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작가들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장품전'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최북미술관은 조선 후기 산수화의 대가 최북의 그림 세계를 조망할 목적으로 건립했으며, 2012년 6월 8일 개관했다. 한편, 지난 2월 관화·한국·사진전을 비롯해 지난 4월 김동식 장인의 합죽선 '바람이 분다' 기획전을 여는 등 무주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조인호 작가 '삶의 여유와 멋' 서예전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8월 22일까지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1층)에서 조인호 작가의 '삶의 여유와 멋'이라는 주제로 서예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 작가는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했으며, 한국서예협회 군산지부장을 역임했다. 다수의 초대전과 지난 2009년 이후 6차례 개인전을 개최하며 꾸준히 활동 중인 작가로, 대한민국 서예대전 및 한국서예대전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다. 전시작품은 한글, 한문, 사군자, 전각 등으로 이뤄져 있다. 조 작가는 "맑고 깨끗한 삶을 영위한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이 작품 속에 스며든 묵

향처럼 은은한 향기를 내어 보느니이로 하여금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우리문화의 자긍심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전시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작가들에게는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서 1개월 가량의 전시기회와 함께 전시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시민갤러리 전시작품을 대상으로 전시 영상을 홈페이지 및 박물관 SNS 채널에 공개하는 온라인 전시도 병행 운영하면서 시민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